

#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요약본

### Module 1. 변호사 도움 없이 민사 분쟁 해결하기

#### 법적 해결능력의 기초 쌓기

- 1) 권리의무관계
- 2) 채권채무관계
- 3) 계약관계

## 1. 권리의무관계

### 1) 정의

법률관계라고 하면 보통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정의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맺는 많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와 의무로 귀결되므로 권리의무관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의무자보다는 주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권리의 이면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면 반대로 B는 A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양자가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강학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하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2) 종류

#### 가. 작용에 의한 분류

가) 지배권 : 목적물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예)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무체재산권, 신체권

나) 청구권 :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채권, 물권적 청구권

다)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예)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

※급부 : 위에서 청구권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배웠는데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급부(給付)"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반대급부로 ~을 받다□이런 표현을 곧잘 씁니다. 반대급부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일(행위)을 해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일(행위)이지요. 여기서 급부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예) 취소권, 해제권

※해제권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종합예시)

A는 친구인 B가 아들의 수술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년간 이자 1%로 빌려주었다. A는 B의 도박을 알고 있던 터라 차용증에 "아들의 수술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는 것이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B는 법적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부기하였다. 한편 B는 A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A에게 돈을 지급받는 동시에 자신의 자동차를 넘겨주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 위 사례의 경우 A가 B에게 1년간 1%의 이자로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계약이며, B는 A에게 위 계약에 따라 대여금 1억원 및 1%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채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 즉 "1억원 및 1%의 이자를 A가 B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바로 "급부"인 것이다.

위 사례에서 B의 "수술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거짓이었고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면 A는 B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수술비를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취소권"(형성권)이며, A의 요구에 대하여 B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동차를 넘겨주기 까지는 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자동차를 돌려줌과 동시에 돈을 받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이라고 한다.

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인격권 :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창작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예) 생명권, 초상권, 성명권

나) 신분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혹은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예) 친권, 상속권

다)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권리

예)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라) 재산권 : 재화, 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채권, 무체재산권

### 3) 권리의 행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권리의 행사이다. 지배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함으로써 행사한다. 청구권은 의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함으로써 행사하고,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일방적 의사표시(취소, 해제)를 함으로써 행사하며, 항변권자는 항변사유를 주장함으로써 행사한다.

### 4) 권리의 주체

자연인(사람)과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상 태아는 상속,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에  
는 상법상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다.

### 5) 권리의 변동

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나.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법적인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다. 법률요건이란 권리변동을 유발하는 법적인 원인을 의미하며, 주요한 법률요건으로 법률  
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있다.

가)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한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된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예컨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2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이며, 앞서  
배운 취소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나)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예컨대 앞서 A가 B에게 수술비 1억원을 빌려준 사례에서, A는 뒤늦게 B가 도박  
자금으로 쓰려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관계는 없어진다. A가 B에게 어떤 행위, 즉 “급부”를 요구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은 취소되어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되었으므로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B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도 없이 1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A는 1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계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채권채무관계

### 1) 정의

앞서 채권은 청구권의 일종으로 배웠고 청구권이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다. 채권법에서 채권과 청구권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나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채무는 채권자의 채권에 상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즉, 급부의무)를 의미한다. 채권(채무)관계란 앞서 배운 권리의무관계 가운데 채권적 권리, 의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인 것이다.

우리생활에서 대부분의 법률관계가 채권관계이다. 예컨대 집을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 운송계약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급부의 내용은 승객입장에서는 “목적지 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이며,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일정 요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승객은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운송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택시기사는 요율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운송료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고용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회사는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채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2) 발생원인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사무관리를 제외하고는 앞서 이미 설명하였다.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모두 해외여행을 가고 사람이 없는 옆집 마당에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경우 열쇠쟁이를 불러 문을 따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도꼭지를 잠가준 사람은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740조).

### 3) 채권의 효력

가. 채권의 효력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것만 언급하자면 청구력, 강제이행, 손해배상청구이다.

가) 청구력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힘.

나) 강제이행 :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수단을 의미한다.

예컨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인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강제이행의 한 모습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강제이행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다) 손해배상청구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컨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나. 채무불이행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눈다.

가) 이행지체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 사과를 주문하여 일요일까지 배송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일요일이 지나도록 배송치 않는 경우.

나) 이행불능 : 채권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예)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과실로 시계를 파손한 경우.

다) 불완전이행 : 일정한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있었으나 불완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사과를 주문하여 배송은 되었으나 썩은 사과를 배송한 경우

### 3. 계약관계

#### 1) 정 의

채권의 발생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 2) 계약의 성립

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청약은 계약에서 먼저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약에 대하여 후에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수령자의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네가 가진 가르띠에 시계를 100만원에 팔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B가 A에게 “좋다! 가르띠에 시계를 100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한 경우 앞의 것이 청약이고 뒤의 것이 승낙이 된다.

이 경우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위의 사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두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고 내용적으로 일치하므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A의 청약>

<B의 승낙>

“네가 가진 가르띠에 시계를 100만원에 팔아라”

“좋다! 가르띠에 시계를 100만원에 팔겠다”

-----> 대립 <-----

나. 변경된 승낙의 효력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 자체에 대하여는 거절한 것이지만, 승낙자가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따라서 이 경우 청약자의 새로운 승낙이 필요하다.

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 3) 계약자유 원칙

근대 사법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원칙으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된다.

계약자유 원칙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세분된다.

- 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계약체결의 자유)
- 나.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
- 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
- 라.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방식의 자유)

### 4) 계약관계의 해제

가. 정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하며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해제권이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다. 말 그대로 전자는 당사자간에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해제권이며, 후자는 법률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이다.

나. 제도의 취지

계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데 일정한 사정(예컨대 상대방의 불성실)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사자에게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해제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다. 법정해제권의 발생

- 가) 이행지체 :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이행지체의 경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둘째,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것(단, 상대가 미리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 불요)

※ 최고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셋째,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예시) 성탄절(25일)에 가족들과 먹으려고 굴 1박스를 주문했고 15일까지 배송해 주기로 한 경우. 15일이 지나 17일이 되어도 오지 않고 상대방은 계속 보내겠다는 말만한다. 주문자는 돈을 돌려받고 다른 곳에 굴을 주문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돌려받고 굴을 다른 곳에 주문한다는 것은 다른 아닌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한다. 해제권의 발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간에 일정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한 합의에 따라 가지는 해제권인데 사례에는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정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정해제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살피면 사례에서 상대방이 변제기인 15일이 지나도록 채무의 이행(굴의 배송)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행지체시 해제권을 규정한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될 것이다.

※ 변제기 : 채무를 이행하기로 정한 시한을 말한다.

앞서 배운 이행지체시의 해제의 요건을 적용해 보면,

첫째, 변제기인 15일이 지나도록 굴이 배송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

둘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다.

셋째, 상대방이 그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역시 아직

최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즉, “20일까지는 반드시 굴을 배송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20일이 지나도록 판매자로부터 굴이 배송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제권은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이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앞서 배운 대로 해제권의 행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전화 또는 편지, 팩스, 메일 여타의 수단을 통해 “굴 주문계약을 해제하오니 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를 보니 굴 1박스 먹기가 너무 어렵다. 차라리 E-mart 같은 곳에 가서 사먹겠다. 법대로 하다간 굴을 먹기도 전에 숨이 넘어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행지체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원리는 모든 계약관계에서 적용된다. 계약내용이 굴 1박스가 아니라 아파트 매매계약이라거나 100억짜리 선박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해보자. 위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하면 적법하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나) 정기행위 (민법 제545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로 하는 공연계약이 그럴 것이다. 이 경우는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친구가 차던 시계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친구의 잘못으로 시계가 파손된 경우.

#### 라.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해제를 위한 최고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마. 해제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즉,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언제로 회복한다는 말인가? 바로 계약체결 이전으로이다.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서로 간에 받은 것은 반환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앞의 굴 주문 사례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판매자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5) 전형계약

민법에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들을 유형화하여 규정해 두었는데 이를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중에서도 실생활에 자주 이용되는 계약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각각의 계약의 의미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가. 제554조 (증여계약)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부모가 자신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

나. 제563조 (매매계약)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아파트 매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

다. 제596조 (교환계약)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바꾸는 경우,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경우이다.

라. 제598조 (소비대차계약)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돈을 빌리는 경우, 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하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을 반환하는 것이며 모두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철원 햅쌀 상등품 1되를 빌리고 철원 햅쌀 상등품 1되를 반환하는 경우

마. 제618조 (임대차계약)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상가임차, 주택임차, 사무실임차

바. 제655조 (고용계약)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직장생활에서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

사 제664조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아파트나 집을 지어 주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등

아. 제680조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